“불교와 지역마을은 운명공동체”

호남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광주 선덕사 주지 원묵 스님



광주지역 도심포교의 떠오르는 모범으로 자리잡은 사찰이 있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 동구에 위치한 선덕사(주지 원묵 · 사진)는 9월 7일 ‘이웃 돌아보기’ 행사를 통해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작은 추석선물을 전달했다. 2014년부터 시작된 행사는 매년 2~3회에 걸쳐 명절과 연말에 늘 이어지는 선덕사 대표 활동 중 하나. 이웃과의 정(情)을 나누고 돌아온 주지 원묵 스님을 만났다.

선덕사가 광주불교계에서 주목 받는 이유는 사찰의 공동체 실현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찰 변화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이 건강하지 않으면 절이 건강하지 못하고, 마을이 없으면 절도 없습니다.”

주지 원묵 스님이 생각하는 사찰과 마을과의 관계다. 그래서 내건 사찰 운영철학 또한 ‘우리 절, 우리 마을’이다.

현재 선덕사는 내부적으로는 사부대중공동체를, 외부적으로는 마을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재가불자들도 불교계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찰 운영을 대부분 스님이 하고 있으나, 이것이 오래되면 소임을 사는 스님도 힘들고 사찰도 건강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스님은 진리에 대해 고민하고 탐구해야 하는데 절 살림살이부터 모든 것을 챙겨야 하다 보니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재가불자들이 사찰운영을 비롯해 수행도 같이 하고, 의식 집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덕사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매월 1회 사찰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찰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찰 재정을 공개하고, 사찰의 중요한 현안을 결정하는 선덕사의 최고 의결기구로 만들었다.

운영위원회 구성 또한 각 신행회 대표뿐만 아니라 불교대학 학인대표, 경전공부반 반장, 각

운영위원회에 사찰 운영 위임

주민과의 소통 프로그램도 다채

“마을 건강해야 절도 건강하다”

시설대표 등 사찰의 모든 운영주체가 참여한다. 구성원이 퍽 독특하다는 생각에 스님의 역할은 무엇인지 물었다.

“스님 역할이요? 그저 사찰의 모든 구성원을 조율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이죠.”

원묵 스님은 불교 가치를 높이면서 전법활동에 매진하는 한편, 사찰운영은 재가불자들이 전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 다른 가치인 마을공동체 실현에 대해서는 선덕사의 공간활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선덕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건물인데 1층은 마을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다. 마을사랑방 역할을 하는 마을 찻집, 마을 도서관(대안도서관 티움)이 이곳에 있다. 사찰에서 가장 편한 1층 공간을 마을주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2층은 강의를 전담하는 공간과 요사채, 그리고 3층은 대웅전이 있는 불교공간으로 활용된다.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인권문화마을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순례, 어린이 · 청소년 인권캠프, 책읽어주는 도서관, 시모임 나루터, 바느질 모임, 밤실 마을길 만들기 등을 운영한다. 불교 프로그램은 어린이법회 외에도 청소년 명상, 삼장학림(경전과정), 걸음마 불교학당(신도기본교육), 무등불교대학 등을 운영해 지역민들을 위한 포교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마을에 절이 있어서 참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이 없으면 절이 없고, 절은 마을에 의지해서 유지됩니다. 하지만 절은 마을문제를 고민 안 합니다. 항상 불교문제만을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마을과 절이 운명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원묵 스님은 산중에서 점차 도심과 가까워지는 불교의 변화 역시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도심 포교의 선구자는 부처님입니다. 불교는 도시를 중심으로 시작된 종교로, 도심포교의 이유가 바로 불교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도심포교에 대한 선덕사의 새로운 시도는 이같은 지향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그리고 광주불교 미래를 위한 변화의 시작이기도 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지역 불교대학 한마음 체육대회

9월 3일 남원서, 화엄불교대학 우승



한마음 체육대회서 진행된 배구경기.

전북지역 불교대학의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제16회 전북지역 불교대학 한마음 체육대회가 9월 3일 남원 이백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전북지역의 남원, 무주, 이리, 전북, 화엄, 참좋은우리절, 정읍불교대학의 재학생과 동문 500여 명이 동참한 이날 체육대회는 배구, 단체 줄넘기, 2인3각, OX 교리퀴즈 등의 경기를 펼치며 불교대학인들의 화합을 다졌다.

남원불교대학 주관으로 열린 이번 불교대학 체육대회는 전북불교대학 학장 도원 스님, 남원불교대학 학장 응묵 스님, 이리불교대학 학장 덕림 스님,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안준아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장 등 불교대학 관계자들과 신행단체 임원들이 참석해 전북지역 불교대학인들의 잔치를 축하했다. 대회서는 화엄불교대학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전북지역 불교대학 체육대회는 해마다 가을에 각 지역불교대학이 순환 주최하면서 불교대학간의 소통과 화합, 포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열리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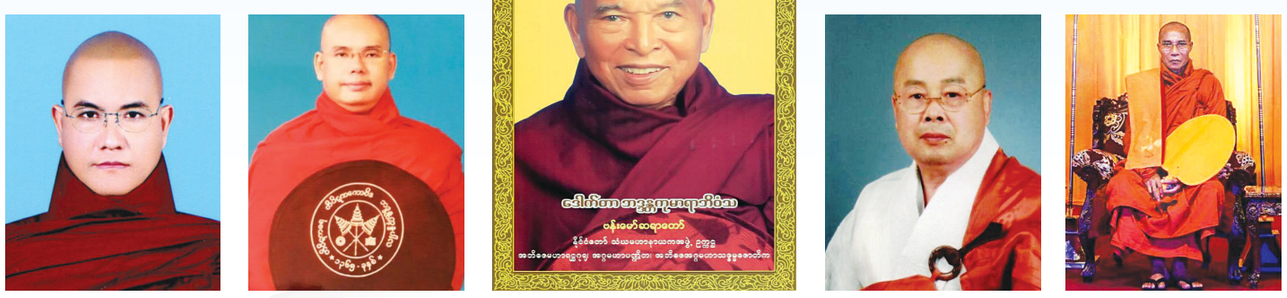
대한불교 나라사랑 연합협의회

세계평화를 기원하고 지구촌 빈민촌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위한 지구촌 세계불교 최고의 지도자와 한국의 400여 종단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불교 지도자들의 법석

世界佛教 指導者 合同 金剛戒壇 대법회

2016년 10월 5일 수요일 / 국회의원 회관대강당 / 오후 1시 30분

■주 최 :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세계 불교도들의 법왕이신 전계대화상 : 우 꾸마라 사야도

교수 아사리 : 에인다빠라 삼장법사. Dr 바라 사야도

갈마 아사리 : Dr 목탁 대승정 짜익티오성 사야도

법왕 Biodata of the Chairman of the State Samgha Mahanayaka Committee, The Most Venerable Dr. Bhaddanta Kumarabhivamsa (Abhidhajamaharattaguru, Aggamahapandita, Abbidhaja-aggamahasaddhammajotika)

❶ BHADDANTA EIN DA PA LA TIPI TAKA DHARA TIPI TAKA KAWI DHA TIPI TAKA DHARA DHAMMA BHAN DAGARIKA

❷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Dr MOK TAK

❸ Biodata of the Chairman of the Yangon Division Sangha Nayaka Committee, The Venerable Dr.Bhaddanta Eikdi Bala (Aggamahasaddhamajotikadhaja, Ph.D.Buddhism)

❹ AGGA MAHA SADHAMA JOTIKADHAJA BADDANDA NAGA DIPA



미얀마 정부 경제특보 보시의 화신 Dr Khin Shwe

한국본부 三師 교수아사리 : 현담 | 갈마아사리 : 혜정 본좌스님 외 108 證明團

10월 4일 각 정당 의원들과의 오찬 | 10월 3일 부평역광장 미얀마타운 명명식 축하법회

합동 建幢(건당) 의식 및 품수의식 봉행

■일시 및 장소 : 2016년 10월 5일 수요일 / 국회의원회관 대강당 / 의식 봉행 1시 30분

관리위원장 : 성각 / 조직위원장 : 원명 / 의전위원 : 성봉스님 외 9명

건당. 품수 심사위원회 의장단 : 혜선. 무상. 진성. 혜관. 심오. 송몽. 법산. 도명. 법현

세계불교지도자 합동금강계단 대법회 추진위원 : 이종관. 대공. 대도

400여 종단 한국불교 高僧 및 元老 큰스님 !

법왕님의 상좌 건당 및 품수 의식

3師 108 證明團에 큰스님들을 공개적으로 추대하여 모시고자 합니다.

주 최 : 대한불교 나라사랑 연합협의회 세계 평화 기원 대법회 봉행위원단

사단법인 : 세계불교법왕청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주 관 : 사단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중앙정부

후 원 : 국회정각회 / 동국대학교총동문회 / 용성 대각사상선양회

총괄본부장 大僧正 목탁 (법왕청 법왕보좌 비서실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 신영빌딩 3층 (삼봉로 68) • 문의 및 접수 : 02)733-5665. 010-3618-6061

4대 종교, 한 자리서 상생 염원한다

2016 세계종교문화축제 9월 20~24일
전주 풍남문광장 비롯해 전북 일대서

불교 · 원불교 · 개신교 · 천주교 등 우리나라 4대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웃종교와의 화합과 상생을 염원하는 ‘2016 세계종교문화축제’가 9월 20~24일까지 전라북도 일대서 닷새간 열린다.

전주와 익산, 김제, 완주, 진안 등 4대 종교성지가 고루 분포된 지역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세계종교평화협의회가 주관한다. 행사는 ‘내 안의 기쁨이 당신에게’라는 주제로 △여는마당 △종교열린마당 △종교문화마당 △세계종교포럼 △종교어울마당 △닫는마당 등 크게 여섯 마당으로 나뉜다.

첫날 오후 7시에 전주 풍남문에서 열리는 여는마당은 혜광 스님의 색소폰 연주, 개신교 판소리, 원불교 교무밴드, 천주교 중창과 더불어 4대 종교지도자들이 함께 평화의 노래를 부른다.

종교열린마당은 21일 평화의 날 ‘이순이 루갈다’ 공연을 시작으로, 자비의 날 가면극, 사랑의 날 뮤지컬 ‘문준경’, 은혜의 날 ‘원불교 100주년 뮤직스토리’ 등 각 종교별 야외공연이 풍남문광장서 매일 열린다.

종교문화마당은 종교와 의료 · 교육 · 여성 · 인권 · 과학 · 문학 · 성물 · 음식 등 각 종교에 녹아 있는 문화콘텐츠가 풍남문광장서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상시전시로 진행된다. 또 최근 다양한 연령층을 막론하고 사랑받고 있는 각 종교탐방을 비롯해 이웃 종교를 돌아보는 시간도 갖는다. 참여자는 전주한옥마을 투어 및 전라북도 종교문화탐방 무료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2016 세계종교문화축제 홈페이지(www.wrcf.or.kr)에서 접수 후 선착순 참여 가능하다.

21일 오후 4시에는 연민(憐愍)을 주제로 한 세계종교포럼이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포럼은 유네스코의 마토코(Edouard Matoko) 사무총장보를 초청해 강연을 듣고, 불교 성우 스님(조계종 제17교구장), 원불교 김혜봉 교무(전북교구장), 천주교 이병호 주교(전주교구장), 개신교 백남운 목사가 대담한다.

한편 개막식전 행사로 20일 오후 2시에는 1000개의 타악기로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타악거리행렬 ‘천상의 북소리’가 펼쳐진다.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 천사의집, 임마누엘쉼터, 사랑의 보금자리, 디딤돌 청소년들이 참여한다.

행사 관계자는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나눔과 상생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널리 알리려고 축제를 마련했다”며 “‘내 안의 기쁨이 당신에게’라는 주제에 맞춰 축제를 통해 4대 종교의 독특한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교감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진안지역 사찰들 ‘사랑나눔 연탄나눔’

탑사 · 쌍봉사 · 고림사, 연탄 6천여장 전달

마이산 탑사 · 쌍봉사 · 고림사 등 진안지역 사찰들은 9월 1일 진안군과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주최한 ‘사랑나눔 연탄나눔 대축제’에 참가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겨울나기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총 3만장의 연탄이 저소득 가정 100세대에 전달된 이날 연탄나눔 대축제에서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는 진안군 마령면 지역 13가구에 각 300장의 연탄과 자비의 쌀 40kg, 명절선물을 나눴다.

쌍봉사(주지 보경)와 고림사(주지 성목)도 각각 5가구 1500장, 3가구 900장을 준비해 직접 배달까지 마쳤다. 행사에는 나누우리 봉사단과 각 사찰 불자, 자원봉사자들이 동참했다. 아울러 이번 연탄나눔 대축제는 진안군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센터 봉사자, 학생, 각 종교단체 봉사자등 500여 명이 참가했다.



마이산 탑사 스님과 재가자들이 연탄봉사를 하고 있다.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은 “산간지역인 진안은 평지보다 일찍 추위가 찾아오고 일교차가 매우 크다”며 “올해는 특히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 어려운 이웃들이 감기로 고생하는 것을 감안해 예년보다 일찍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